

2025년 정배교회 성탄절 예배

12월 25일(목) 오전 11시, 정배교회 예배당, 집례: 정대진 목사

*예배로 부름	집례자
*입례송 찬송가 122장(참 반가운 성도여)	다함께
*기원	집례자
*찬송 찬송가 115장(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함께
공동기도 “주 나신 날의 노래”(St. Ephrem, 4C)	다함께

집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회 중: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취 주소서

다함께: 이날은 화해의 밤입니다. 어느 누구도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 맙시다.

모든 평화가 깃든 이 밤에 어느 누구도 위협하지 말고 떠들지 맙시다.

이날은 감미로우신 그분의 밤입니다. 어느 누구도 쓴소리 내거나 거칠지 맙시다.

겸손하신 이의 이 밤에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맙시다.

용서의 이날에 대적자들에게 복수하지 맙시다. 즐거운 이날에 슬픔을 삼키지 맙시다.

달콤한 이날에 격노하지 맙시다. 침착한 이날에 격동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현존하시려 오신 이날에 한낱 인간이 죄인보다 낮다 우쭐대지 맙시다.

모든 주의 주께서 하인들 가운데 오신 이날에 주인들이라도 자신의 하인들에게 사랑스레 굽힙시다.

이날에 그 부요한 이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자기 식탁에 가난한 이와 함께 앉읍시다.

이날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한 선물이 주어졌으니

우리도 달라고 간구하며 비는 자들을 위해 예물을 나눕시다.

이날은 높은 문이 우리의 기도를 위해 열린 날이니

용서를 구하며 찾는 이들에게 우리 또한 문을 엽시다.

오늘 변하지 않는 본성을 지닌 그분이 당신의 본성을 거슬러 변화된 날이니

우리 역시 우리의 죄악 된 의지를 거슬러 끊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본성상 그 몸은 더 크거나 더 작아지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모든 크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은 그 의지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신성이 인류에 새겨진 날이니 인류 또한 신성의 봉함을 깨치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날입니다.

이와 같은 성탄의 신비와 은혜를 저희 모두가 충만히 누리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찬송가 123장(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다함께
성경봉독 마태복음 1장 18~25절	집례자
특송	교육부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말씀선포 성탄의 조연	정대진 목사
봉헌 찬송가 50장 1, 3절	다함께
성찬	다함께
*찬송 찬송가 112장(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함께
*축도	집례자